

후루보추(古坊中)란 무엇이였을까?

사이간덴지 절은 인도에서 온 사이에이(最榮)라는 승려에 의해 726 년에 창건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절은 화산신앙과 슈겐도(修驗道)의 주요 거점으로 확립되었습니다. 14~15 세기가 되자 수백 명의 야마부시(산악 수행자)들이 사찰 서쪽에 다양한 넓이의 92 구획으로 나누어진 비교적 평탄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37 개의 훌륭한 목조 사원과 51 개의 작고 소박한 초가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야마부시와 승려들의 원만한 공동체는 후루보추(古坊中)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추(坊中)란 ‘승려와 그들이 거주하는 곳, 참배자들이 머무는 곳의 집합체’, ‘후루(古)’라는 접두어는 '오래된'이라는 뜻입니다.

수행자들은 매일 명상과 단식, 경전 등의 수행에 정진하거나 분화구 내 연못을 관찰하여 신들의 마음 상태나 의향을 살피거나, 참배자들이 분화구를 참배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허용된 가장 높은 지점까지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1960 년대 한 농가가 소를 방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이 지역을 정비하던 중 몇 개의 작은 석탑을 발견했습니다. 2000 년대에는 구마모토대학 화산학자 와타나베 가즈노리 교수가 시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야마부시의 거처 지붕이었던 불에 탄 억새와 절 건물의 나무기둥이 발견되었습니다.